012322 주일설교 "**주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Luke) 4:14-21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죽을 수도 있었던 질병에서 살려주시고 여러분 앞에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오늘은 그간 한달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 제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목사관에 돌아왔는데, 저녁에는 손발이 조금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둔해지고 특히 말이 잘 안나오는 거에요. 마치 혀와 입술이 마취가 되었다가 안풀린 것처럼요.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고는 누워서 좀 쉬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과 의사인 고유미 집사님을 포함하여 저의 지인 분들 가운데 의사분들께 여쭈어 보았더니, 어눌해 진것이 확실하다면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에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일단 목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St. Vincent Hospital 응급실로 갔습니다. 말을 잘 못하겠고, 손발이 많이 저리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혼자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해졌다고 하니까 Stroke 즉 뇌졸중 검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머리와 목 부위에 조영물 CT촬영과 일반 CT촬영을 하고,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뇌는 깨끗하다는 거에요. 결국 뇌졸중은 확실히 아닌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니까 저의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병원 응급실에 오라고 하고는 그렇게 퇴원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몸이 더 둔해지 걸 느꼈어요. 아내와 함께 교회 주차장을 좀 걸어봤는데 확실히 월요일보다 걷는 것이 힘들었어요. 수요일 아침에는 좀 더 몸이 둔해지고, 호흡하는 것도 조금씩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는데, 의사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리고는 혹시모르니까 전기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는데, 연말까지 예약이 다찼으니까 기다렸다가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3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상태는 점점 안좋아지는데, 그때

까지만 해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뉴헤이븐에서 사역했을 당시 교회 청년부 가운데, 예일 의대 MD Ph.D. 6년차 학생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원래 계획 대로라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이 괜슬이 되고,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듣게 되고는 월요일 저녁 응급실 가는 것부터, 수요일 아침 신경과전문의 만나는 것을 함께 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예일의대 지도 교수님께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빨리 예일대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예일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늦은 밤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그 청년이 함께해 줬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알수는 없지만, 돌이켜 보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이레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예일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저의 증상을 보고 여러 테스트를 해보더니 Guillain-Barré syndrome 가운데 Miller Fisher Syndrome 같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 희귀병인데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제 몸의 면역체계가 제 몸의 말초신경계를 공격하게 되어서 몸이 점점 마비되어지는 병이었어요. 발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눈부터 시작해서 점점 마비 증상이 온몸에 퍼지게 되고, 폐와 심장까지 마비가 되면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구요. 수요일부터는 물을 삼키면 자꾸 코로 넘어오고 그러다보니 병원에서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다리는 점점 힘이 빠져서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 졌습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 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와 저의 증상들로부터 GBS라고 거진 확신을 하고, 밤 늦게부터 IVIg라는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5일동안 5번에 나누어서 맞아야하는데, 매 4시간 마다 폐활량을 채크하고, 또 피검사를 하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눈이 이상해져서 책을 볼수도 없고, 전화기를 볼수도 없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도 않았어요. 나름 눈을 감고는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하는 목사인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목회자로서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2월 12일에 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봤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 순간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비록 병원 안에 누워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것은 내가 혹 죽는다고 해도 죽음이 두렵지는 않더라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목사로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부터 서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일구어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5일동안 난생처음으로 입원을 하고, 간신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퇴원을 했습니다. 하루에 아주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다가, 퇴원한지 3일이 지나니까, 오른쪽 얼굴 근육 마비 증상이 시작되더니, 몇일 있으니까 왼쪽 얼굴 근육도 마비가 되더라구요. 얼굴 근육을 움직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입맛은 돌아왔는데, 그때는 먹는게 젤 힘들더라구요. 다행히 턱은 움직일 수 있어서 턱으로 음식을 씹고, 제 두 손으로 볼을 눌러서 음식을 먹었어요. 얼굴 근육들 하나 하나가 밥먹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주전까지만 해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어 회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서 병원 심방을 자주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 기회를 통해 그분들을 더 많이 공감해주고 사랑해 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소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17 절에서 말하듯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셨다 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1-2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러 이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도 말합니다.

희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안식의 해를 7 회 거듭한 후에 오는 제 50 년째의 해. 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50 년 째마다 찾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해. [요-벨-희년](yobel), [요벨의 해] "요벨"은 [수양의 뿔]이라는 악기(나팔)의 일종인데, 50 년째 해의 [속죄일]에 요벨을 불어, 그 해가 온 것을 사람들로 알게 했기 때문에, 요벨의 해(희년)로 불리웠습니다(레 25 장, 민 36 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으로서 모든 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해를 말해요. 저당 잡혔던 땅이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해이죠.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 궁극적인 희년의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하신 구원!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을 말하는 거에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인용되어있는 이사야 61:2 에 보면, 원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즉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습니다. 그 보복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 장 2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season of grace...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역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그의 귀한 삶으로 증거하신 복음을 귀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적 눈이 다시 띄어서 바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귀에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려주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원래 출처인 이사야 61 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 첨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메세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드릴 만한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간절하게 메달립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구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애굽과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루 하루를 사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셔요! 앞을 보지 못하면 가야할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야할 본향, 아버지의 품이 있는 이 땅 위에 나그네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눈먼 자들에게 안수하시어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9 장에 보면 맹인 된 자를 치유하면서도 인간의 영적 맹인 된 상태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9 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요 9:40-41).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야 말로영적 맹인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되면, 주님이 보이고, 죄인인 내가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할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말씀으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의 권능으로 눈먼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밀러 휘셔 신드롬, 기얀 버뤠이 신드롬에 제가 왜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Why)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만 아실 거에요. 하지만 어떻게(How)에 대한 대답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이기에 앞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

도인으로 주 안에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소위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 보신적 있으시지요? 반대로 그때 그 사람이 분명히 망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실패를 딛고서 영화롭게 되는 것 보셨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현실과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만 우리 삶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끝났을 때 그대의 예배는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 할것은 시시각각 우리 삶에 불어닦치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자유함, 다시보게됨, 은혜의 해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변해가도록 하십시다! 마르고 냉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영생의 샘물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나눠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생명을 걸고 간구하시는 2022년, 주의 은혜의 해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